2023 년 10 월 14-15 일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독일과 남북한 학교의 가치 교육 변화

Geteilte Werte im Wandel:
Schulische Wertebildung in Deutschland und Korea

발행
KOREA VERBAND e.V.

편집
Gabriel Dae-In Lux,
Han Nataly Jung-Hwa, Jung Yujin

번역 및 교정
Hong Nammyoung, Jung Jieun,
Lee Jiye Josephine, Kang Soomin,
Katja Katharina Perepetschajev,
Peter Kesselburg

발행처
KOREA VERBAND e.V.
Quitzowstr. 103 10551 Berlin
Tel: +49 (0)30 3980 5984
Fax: +49 (0)30 3980 5986
mail@koreaverband.de
www.koreaverband.de

자료집 디자인
Shim Hyangbok

이 자료집에 수록된 글들을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배포하고자 할 경우, 발행처 및 필자들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는 코리아협의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VERBAND

이 자료집은 독일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 연방재단>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UNDESSTIFTUNG AUFARBEITUNG

이 자료집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차례

독일과 남북한 가치교육의 연속성과 변화 4

1. 가치와 가치교육
   시빌레 라인하르트
2. 남북한의 노동가치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연구 5
   윤보영
3. 독일 통합학교 사례로 본 한국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12
   정진헌
4. 북한 국어교육 내 ‘례절’에 관한 교육적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 17
   엄인영
5.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치 갈등과 내적 통합을 위한 방안 25
   신효숙

현장에서의 학교 가치 교육 33

1. 북한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교육 34
   최영실
2. 통일 이후동서독의 공유 가치와 차이점 37
   한넬로레 슈나이더

필진 소개

시빌레 라인하르트
마르틴 루터 할레-비텐베르크 대학교(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사회학 명예교수

이 발표문은 기존의 책에 실린 것으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 자료집에 수록하지 않았다.
독일어 원문을 보고 싶은 이는 독일 Wochenschau Verlag에서 2022년에 출판한 단행본
<Handbuch politische Bildung> 346쪽을 보기 바란다.

윤보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정진헌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엄인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최영실
전 북한 교사, <통일사랑교육협의회> 대표

한넬로레 슈나이더
구동독 출신 교사. 1989년 탈동독 후, 에센과 마인츠 등지에서 교사로 재직

독일과 남북한 가치교육의 연속성과 변화

남북한의 노동가치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연구

윤보영

1. 서 론

가치(value)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가치는 그 상품의 쓰임, 유용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관련하여 어떤 대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것에 가치라는 단어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노동에 담겨 있는 어떤 유용한 것, 어떤 유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노동가치론(labor theory of value)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론들은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믿음에 근거를 마련했던 철학을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는 어떠한 노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상품의 가치를 창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에 두고 노동을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수행해 왔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상품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노동을 하는 과정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여기에 '투하하는 노동시간 = 가치'라는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가치 개념에는 '투하하는 노동시간'과 '사회관계'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다. 가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가치를 승인해주는 사회 속에서의 과정이 필요하다.[1] 많은 학자들이 가치 논쟁을 해왔지만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교육을 통해 그것을 다루는 데 한계를 느낀다. 때문에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논의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마르크스의 논의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분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치를 단순히 계량화된 상태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분적인 이해이며, 사회 구성원 사이를 오고가며 순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란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에 의해 측정되는 욕망의 정도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물건에는 여러 다른 행위의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는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원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며, 무엇이 타당하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2]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가치 교육은 노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노동가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사회화된 자신을 남한에서 만나는 경험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북한에서 배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개념 역시 남한에서 혼란을 겪고,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남북한의 노동에 대한 교육을 비교하고, 노동의 가치교육의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남한의 노동가치 교육

남한의 초중고 교육에서 노동이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사회와 도덕교육이다. 남한에서 사회교육은 1946년 미군정 하

1 박영균, 『노동가치』 (서울: 책세상, 2009), 165, 132.

2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서정은 옮김,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울: 그린비, 2009), 3-89.

에서 미국 콜로라도 주의 ‘Social Studies’를 ‘사회생활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근대적 의미의 도덕교육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 수신(修身) 과목으로 지속해 오다가 1945년 광복 후 미군정 하에서 사회생활과를 설치하여 공민(公民) 분과로 이어졌으며 1973년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다.[3]

초중고 교과과정에 ‘노동권’이 등장한 것은 2015년 사회교과로 “인권과 헌법”의 항에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직업 생활 속에서 노동권이 침해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의식 교육을 다루기 시작했다.[4] ‘노동의 가치’가 등장한 것은 2022년 도덕교과이다. “민주시민과 윤리”의 항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필요성을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5] 2022년 고시된 <교육과정>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급별, 학년별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노동의 가치의 내용을 다룬 교과서는 발행되지 않았다.[6] 남한의 초중고 교육에서 노동에 대한 언급이 2015년에야 등장한 것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매우 불온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단어는 금지되고 ‘근로자’로 사용된 바 있으며, ‘노동’은 마르크스, 용공, 좌익, 빨갱이로 전치되었다. 심지어 노동을 인간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론들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었다.[7]

3. 북한의 노동가치 교육

> 노동에 의하여 우리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물질적 제부가 마련되며 보다 풍요하고 문명한 우리들의 행복이 꽃피어 납니다. 노동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며, 우리 모두의 마땅한 도덕입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의 노동에 의해 마련된 재부와 행복을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리도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즐겨하는 품성을 적극 키워 나가야 합니다. <초급중학교 2학년 『사회주의 도덕과 법』>[8]

북한의 모든 인민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즐겁고 보람차게 일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9]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16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남자와 만 55세 이하의 여자는 군복무, 진학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를 제

---

3 권기원 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도덕, 사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p. 161. 검색일: 2023.9.20., URL:ncic.re.kr/nation.dwn.ogf.inventoryList.do

4 교육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p. 84. 검색일: 2023.9.20., URL: 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C&s=moe&m=0404&opType=N&boardSeq=60747)

5 교육부,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6, 2022) p. 34. 검색일: 2023.9.20., URL: 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8

6 남한은 1989년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교과 다종교과서가 허용된 여러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교육과정> (Lehrplan)을 발표하고, 각 출판사는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만든다. 이후 교육부에서 검정을 받아 출판하면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여 학교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다. 남한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를 참조하였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검토. 특히 사회와 도덕교과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1, 2, 3, 4, 5, 6, 7차와 2007, 2009, 2015, 2022년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과 사회, 도덕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7 박영균, 『노동가치』 (서울: 책세상, 2009), 24.

8 『사회주의 도덕과 법: 초급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87.

9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0조.

외하고는 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한다.[10] 북한이 지향하는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되기 전까지[11]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며 계속 혁명해야 함을 강조되어 왔다.[12] 때문에 노동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으로 설명된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북한은 1948년 9월 정식국가를 수립하기 이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였던 1946년 토지개혁, 노동, 남녀평등의 법령을 발표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기존의 봉건주의 체제의 부조리함과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산주의 혁명의 이름으로 선언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에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그가 한 노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능력과 투과한 시간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노동자의 열정, 흥미,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13]

그러나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김일성의 1946년 "로동법령의 근본정신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일은 적게 하고 월급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달군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설[14]에서도 알 수 있듯 열심히 일하지 않고 꾀를 부리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된다.

> 사람이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든 것을 거저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은 기생충의 생활로 양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 노동에 잘 참가하지 않는 것도 집단에 대한 비도덕적 행동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자기 자신과 집단을 위한 영예 롭고 보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노동에 성실하게 참가해야 합니다. <초급중학교 2학년 『사회주의 도덕과 법』>[15]

북한에서 노동이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서의 노동과 사회적 노동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도시경영법과 주민행정법에 따라 인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은 지역 발전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만들고 마을과 집 그리고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한다. 이때 각자에게 나눠지는 노동의 분배는 '사회적 과제'로, 투하되는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표기된다. 인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로건설과 공장건설과 같은 건설이 진행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직접 노동에 참여하게 되며, 농촌에서 가장 일손이 필요한 모내기, 추수와 같은 기간에도 지역의 인민들이 참여한다.[16] 직장에서의 노동, 사회에서의 노동 모두 일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도덕으로 설명하며,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문화가 필요할 경우 "대중적인 노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

10 『북한 사회주의로동법』 제15조, 제74조."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등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pp. 141, 122. <사회주의 도덕과 법>을 교육하는 교사용 참고서에는 보다 자세하게 노동자가 이러한 의무를 회피했을 경우, 행정처벌법 제215조에 의거하여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늙은이, 어린이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행정처벌법 제215조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수참고서: 고등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pp. 141, pp. 180, 264.

11 모든 생산수단이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며 따라서 착취와 억압이 없다. 도시와 농촌,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대립이 청산되며 각자는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의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공산주의,"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19-20.

12 "로임의 평균주의,"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97.

13 "로임의 평균주의,"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97.

14 김일성, "국영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각 도인민위원회 산업부장 및 국영기업소 지배인 회의에서 한 연설, 1946년 12월 3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7. * 조쏘사전, 건달군=부랑자, 걸인, 게으름뱅이 лодырь, повёса, бездельник

15 『사회주의 도덕과 법: 초급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93.

16 『도시경영법(2015)』, 1992년 제정, 2015.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 수정보충, *『주민행정법(2010)』, 2010.7.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4호 채택

(표) 하루에 천리(400km), 만리(4000km)를 달리는 말의 속도로 열심히 일하자! 캠페인

Propaganda Posters/Did You Rush Toward in the Spirit of Chollima?/Kwak Heung-mo/1959

Propaganda Posters/Did You Rush Toward in the Spirit of Mallima?/Kwak Heung-mo/2016

직업으로서의 노동은 월급을 받지만 사회적 과제로서의 노동은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필요한 자재와 돈을 제공하고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직업으로서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학교 정규교육 과정과 직장생활, 인민반을 중심으로 거주공동체 안에서 해당시기 필요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 오늘은 전체 주민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될 어린이 공원의 부지정리 작업을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남이네 집에서도 모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탄광기계 공장 작업반장인 아버지는 삽을 준비했고 식료품 공장에 다니는 형은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수남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놀게 될 공원을 만드는 일인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수남이는 자기도 부지정리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부지정리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생략) 잡초만 무성하고 볼품이 없었던 땅이 몇 시간 만에 번듯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남이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거라. 쓸모없던 이 땅이 오늘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땀흘려 일한 노력 덕분에 너희들을 위한 공연이 되었고, 우리의 고향도 더 훌륭해졌다. 이렇게 노동을 통해 우리의 재부가 마련되고 우리의 생활이 꽃피어 나는 게 아니겠니“ <초급중학교 2학년 『사회주의 도덕과 법>[17]

육체노동은 힘들기 때문에 북한사회에서도 인기가 없다. 그러나 노동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인민의 태도에 대한 교육과 규범은 남한의 그것과 다르다. 북한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아직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에 차별을 줄이지 못했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공동체를 자기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태도라고 교육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다만 학교 교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론, 영화, 노래, TV 드라마, 소설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인민들에게 전달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는 탄부, 주물공은 문화 콘텐츠에서 이름 없는 영웅으로 표현된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일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헌신이라는 점에서 숭고한 희생으로 의미를 부여받는다. 육체노동자도 자신이 일하는 직업공간 안에서 계속 배워서 본인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장대학을 운영해왔다.

17 『사회주의 도덕과 법: 초급중학교 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89-90.

용해공/최계근/조선화/160*315/1968

Propaganda Posters/Mansudae Chʻangjaksa/
Pak, Myŏng-chʻŏl/Get more rice to the front!/
1997

4. 북한이탈주민의 삶에서 상충하는 남북한의 노동경험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3,981명이다.[18]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97년 이후 26년이 되었다. 이들은 중국을 위시한 제3국에서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외교부와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남한 입국 후 통일부에서 12주 동안 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주거지와 지원금 등을 비롯하여 정착지원을 받는다.[19]

정책은 이들의 '자립과 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매년 이들의 정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75.5%이며, 남한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북한에서 직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60.7%이며, 77.4%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가 23.9%로 높았다.[20]

북한은 노동자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하는 정책을 강조했지만,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는 북한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에 대한 관점 역시 북한에서 그동안 쌓아온 교육과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북한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규범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며 남한에서 북한의 경제를 연구하는 윤승비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북한의 직업분야별로 700원-6670원 사이의 월급이 책정되어 있으며, 시장에서 쌀 1kg이 5,000원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월급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21]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자서전, 개인적인 인터뷰, 온오프라인 메모와 같

18 1993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로 입국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인 1994년을 기점으로 50명 내외로 늘어나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1998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2001년부터 연간 입국인원이 1,000명에 이르렀고, 2006년 2,000명을 넘어 한 해 3000여 명에 가까웠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1500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졌기 때문에 2022년은 19명이, 2023년 6월까지 99명이 입국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통일부, 검색일: 2023.9.17. URL: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19 관계부처 합동계획,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검색일: 2023.9.17. URL: 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archive/

20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22 Settlement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22), 57.

21 윤승비,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시장과 소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pp. 105-114.

은 공간에서 남한에서 일하며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토로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서른 살까지 노동자로 일했고 1998년 식량난을 피해 남한에 온 이후 계약직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경화는 자서전을 통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일 자체보다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남한사람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같이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인이다"[22]라고 비판했다. 경화의 남한사회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에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줄곧 남한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불평으로 다뤄져 왔다. 물론 북한에서도 힘든 육체노동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도명학은 북한에서 농장원은 "꼬리 없는 소"라고 지칭할 정도로 힘든 노동을 한다고 그의 소설에서 다룬 바 있다.[23] 그러니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적으로 이것은 은밀하게 통용되는 언어이지, 공개적인 공간에서 육체노동자를 멸시하는 문화는 북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이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5.1%로 일반국민 대비 5.3시간 길고 평균 2384만원의 월급을 받아 일반국민 대비 49.6만원 적게 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 국민전체 대비 비교적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강조하는 남한정부의 정책이다.[24]

정부가 제안하는 북한이탈주민다움은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이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가 통일을 경험할 수 있게 먼저 온 미래, 통일의 연습장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활용" 통일교육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착한캠페인, 착한봉사단, 착한사례 모음집에는 편견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몫이라는 걸 깨닫고, 착하고 솔직하게 노력한 끝에 자립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약계층을 돌보고 현충원에서 묘역을 정돈하며 남한사회에 보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5]

착한(着韓)이란 '대한민국에 잘 정착한'이란 뜻으로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된다. 편견을 참고, 받아들이고, 기다렸으며, 착하고, 솔직하게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사람은 봉사로 감사함을 되갚는 착한 북한이탈주민다운 생활양식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착한 사례 모음집』으로 발행되었다.[26] 2015년부터 『착한 봉사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봉사의 주된 내용은 소외된 이웃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과 음식 나눔,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한 청소, 집 꾸미기와 같은 활

---

22 경화, 『나의 살던 북한은』 (서울: 일다, 2019), 207.

23 도명학 외, 『꼬리 없는 소』 (서울: 예옥, 2018)

24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 고용률은 59.2%, 비경제활동비율은 37%, 실업률은 6.1%로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은 1.9%, 고용률은 3.8% 낮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참가율은 1.9%, 실업률은 3.1%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유형은 단순노무종사자가 21.2%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종사자 1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11.6%의 순이다. 일반국민 대비 단순노무종사자는 6.4%, 서비스종사자는 7.6%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9% 낮게 나타났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5.1%로 일반국민 대비 5.3시간 길고 평균 2384만원의 월급을 받아 일반국민 대비 49.6만원 적게 받는다. 평균 근속기간은 35.3개월로 일반국민 대비 36.7개월 낮게 나타나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90%는 입국 후 5년이 지났으며, 남한 국민전체 대비 비교적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22 Settlement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22), 46, 49, 51, 55, 56, 62.

25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문제 중 하나는 '편견'입니다. (중략) 유림씨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2006년 3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에 입국한 유림씨는 식당일을 시작으로 운동화 방수 코팅 회사, 피부관리실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신경파열 진단을 받았고, 일을 계속 하면 팔을 못 쓸 수 있다는 말에 새 직업을 찾아야 했는데요. 한 지인이 소개로 상조회사를 찾아간 유림씨는 '북한사람이라,' '북한에서 왔으니까' 등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정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현재 양산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중략) 2019년에는 '뉴(new)희망봉사단'을 만들어 부산 지역의 복지관에서 정기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다. 게시일: 2021.12.16. URL: www.koreahana.or.kr/home/kor/promotionData/promotion/cardNews

26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着韓)공감 1-3』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2016)

동이다.[27]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범주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요청과 기대가 다를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게 요청됨을 포착할 수 있다.

북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존재로 규정당하고 나아가 남한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착한 이주민으로 훈육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겹겹의 기대에는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 시각이 겹쳐 있고, 근원적으로 남한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울처럼 보여준다.[28]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과 남한은 직장에서의 노동과 사회에서의 노동을 모두 혼재하여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2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착한 봉사단 백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

28 Yoon, Bo-young. (2022). “Conditional Hospitality and Friction between Moral Subjects,”『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5(3): 224-268.

독일 통합학교 사례로 본 한국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정진헌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독일의 통합학교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향 및 방법에 글로벌 시민성과 글로벌 시민정체성 교육을 접목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특히 미래지향적 학교문화 형성에 통일교육, 세계시민성 교육이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하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향점을 고려하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경험과 나아가 최근 한국 교육현장에서 독일 사례를 참고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본 발표는 확고한 결론보다는 열린 토론 차원에서 향후 깊이 있는 논의와 실천을 고민하고자 하는 시론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내 통일교육 관련 실태와 한계를 검토하고, 필자가 학부모이자 인류학자로서 관찰한 독일 괴팅엔 시의 통합학교 사례를 통해, 한국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2. 한국 통일교육의 실태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다는 것,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통일교육이 학교는 물론 공무원, 교사, 주요 시민사회까지 골고루 진행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통일교육”의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지원법 2조 1장). 이 개념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그 분단은 체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적 공동체임을, 그러나 동시에 안보 차원에서는 경계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지향적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 통일교육이다.

이렇게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회통일교육은 필자가 속한 국립통일교육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각 공공 교육기관과 지역별 통일교육센터, 그리고 민간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2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학생과 교사, 공직자 대부분, 그리고 정확히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시민들이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은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매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PUS)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20-30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점점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19~29세)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7.8%에 불과 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몇 년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이다.

국립통일교육원에서 2022년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도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약 83%, 교사 약 90%가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2020년과 2021년 약 50%대에서 2022년에는 47%대로 내려갔으며,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전년도의 60%대에서 50% 후반대로 내려간 반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비율은 30%대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 이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교육의 컨텐츠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대개 학기당 1시간 정도가 통일교육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나마 동영상 시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라는 통일교육의 개념은, 교육 내용으로 외화 될 때에는 주로 실제 가보지 못하는 북한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한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지만,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 보는 인식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과 시민들 모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이 낮아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하는 이유에는 남북한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할 때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진다. 반면 최근처럼 남북한 사이가 냉각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적 도발이라는 키워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한국 정부에서도 평화보다는 안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남북한 간의 관계는 곧 정부 주도의 외교 및 안보 관련 이슈라는 점, 다시 말해 남북한 통일을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여기게 된 냉전문화의 지속,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는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핵심 내용들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정, 소통과 대화, 그리고 협력의 노력 등임에 분명하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려는 이중적 혹은 균형적 관점은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관을 요구한다. 다만 소통과 협력 같은 덕목들은 한국 학교에서는 주류 문화가 아니다. 한국의 학교는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치열한 입시경쟁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한 서열화. 이는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가치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한국의 교육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현실적 성공과는 거리가 먼 비주류이자 변두리 과목이다.

또 하나 통일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그 스펙트럼이 국가와 민족 문제로 제한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이라는 미래상은 현재의 국가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다. 한국은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청소년들은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해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가상 공간의 관계 맺기와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가 혼재되고 사회적 관계 맺기가 탈경계적임에도 다름과 차이의 소통보다 틀림과 차별의 서열 만들기 주류 문화를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필자는 통일교육의 개념에 등장하는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범주를 보다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나 통일의 문제를 민족이나 국가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때문에 자기 주체성(agency)이 발휘되는 영역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물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보편적 의미로서의 평화 이슈로 확대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교육 영역이기에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3. 학교문화로서의 통일교육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학교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육적 아젠다로서의 통일과 평화교육이 한국 사회에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학교문화는 그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규범과 생활방식 등의 총체적 합을 의미한다. 학교와 문화라는 각각의 개념은 사실 미래보다는 과거에 기반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대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규범에 익숙해질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때문에 학교는 세대 간의 만남이고 미래와 과거가 현재에서 만나는 접촉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규범이 전달되면서도 그것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변형시키는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진다. 문화 역시 주로 과거로부터 축적된 산물들이지만, 인간 일상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관련된 생각과 실천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기반한다. 개인마다 다르고 경쟁적인 맥락에서 추구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욕망(desire)이라 부른다면, 서로 다른 배경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동의 목표를 협상하고 그를 이루고자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실천의 문화는 열망(aspir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학교는 그러므로, 개인적 욕망과 공동체적 열망이 만들어지고 어우러지는 문화적 공간이다.

한국의 학교문화는 한때 냉전체제가 만들어낸 군사문화의 축소판인 적도 있었다. 몇 사람이 잘못해도 반 전체가 기합을 받기도 했으며, 교사의 폭력은 공공연하게 정당화되었고, 학생들 사이에도 물리적 폭력으로 서열이 만들어졌다. 북한을 이기기 위한 군사적 정신력이 필요했고, 실제 군사훈련을 통해 반북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의 학교문화 역시 급속도로 변해갔다.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하던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점차 뒤처졌고, 교사 중심의 교실은 학생 중심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과 그를 계기로 교권 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는 한국 학교문화의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으로 증명하고 있다.

4.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사례와 시사점

그렇다면 통일교육이 학교문화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끼? 이를 위해 필자는 지난 십여 년간 독일 괴팅엔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며 경험한 통합학교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

괴팅엔 통합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5학년부터 진학하는 중고등학교이다. 이 학교의 신입생들은, 13학년에 마치는 대학진학반인 김나지움에 추천받은 학생 50%, 10학년까지의 레알슐레 추천자 30%, 그리고 9학년까지의 하프슐레 추천자 20%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 대학진학반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85% 정도로, 독일 평균 약 40%인 대학진학율에 비해 훨씬 높으며, 아비투어 평균 성적도 다른 김나지움에 비해서도 높다. 2015년 당시 학교 교장과의 인터뷰에서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학교 아젠다를 들었다.

> “우리의 아이들은 국제화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일하는 연습,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더라도 서로 소통하며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는 목수가 되고, 누구는 건축설계사가 되고, 또 누군가는 회사 대표로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협동해 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함께 일하면 높은 효율성은 물론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교사와 학부모인 어른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개인별로 다른 달란트는 위 아래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능력들을 학생들이 서로 인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인정되면서도,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공동체

적 감성을 기르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1970년대에 아젠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 이 학교는 책상그룹(Tischgruppen)을 기본 단위로 구성하여,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나아가 학교 건물까지 일관되게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한 반을 30명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책상에 여섯 명이 앉아서, 1년 단위로 바꾸어 5년간 운영하면 학생들 개개인이 골고루 서로를 경험하게 된다. 학부모들 역시 학기별 평가 모임을 가정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면서 서로의 삶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된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1인이 2인으로 여겨지며, 책상그룹 단위별로 토론할 때에 정신지체 친구에게도 한 친구가 따로 설명하면서 동등하게 참여하게 한다.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도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언어와 복장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반에 맞이하기도 했다. 내적 다양성에 익숙해지고 사회적 기초체력을 기른 학생들은 외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아들도 이 학교를 이번에 졸업했다. 학생 시절, 일찌감치 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듯, 아들에게 이 다음에 되고 싶은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지에 질문은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물음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내게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상 경험도 없고 어떤 직업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벌써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는 다시 학교에서 그럼 이런 질문을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적이 없냐고 되물었다. 아들은 당연히 없다고 바로 답했다. 이 학교는 미국의 job shadowing보다 체계적으로 매년 직접 직업 체험을 하도록 하면서, 스스로의 적성을 찾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교육이 결과나 성과, 목표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실천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 중심의 패러다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과정의 산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열린 교육 구조이다. 이는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한국식 평가와 교훈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 종종 “체제통합은 성공했으나 사회통합에는 실패했다”는 결과 중심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 주요 공식 담론에서는 독일 통일에 대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의 학교들은 대학입시라는 최종적인 목표와 결과에 중심을 두고 경쟁시스템을 가동한다.

따라서 괴팅엔 통합학교의 사례는 통일교육의 학교문화 변화를 위해 두 가지 유의미한 교훈을 추릴 수 있게 한다. 첫째는, 개인의 재능과 주체성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중심의 패러다임이다.

통일교육은 위에서 거론한 바, 확대된 평화교육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평등한 관계성, 소통과 협력, 북한에 대해 경계의 대상이지만 협력에 대상이기도 하다는 균형적 관점, 분단현실보다는 통일을 통한 번영 등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내용과 취지가 국가나 민족 등 집단 중심에 보다 당위성을 두는 경향이다. 개인으로 출발한 통일의 이익을 강조한다 해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미 서술했듯이,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현재 한국 학교문화의 주류가 아니라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괴팅엔 통합학교 사례에서 취한 교육 아젠다를 통일교육에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개인”에 대한 철학적·교육적 개념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개인을 민족이나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의하던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반친구들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까지의 관계성을 인식하게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감수성을 체험하고 익히는 통일교육의 아젠다 설정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수방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역 학교 단위에서는 외국 출신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니, 탈북 학생들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끼리 이해와 인정, 소통과 협력하는 연습을 통해, 향후 맞닥뜨리게 될 북한 학생들과의 접촉, 나아가 통일로 인해 더 늘어날 타국가 출신 청소년들과의 만남도 대비하는 것이다. 통일교육 시에는 괴팅엔 통합학교 학생들이 익숙하게 된 책상그룹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적 감수성을 익히는 학습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두 번째의 과정중심적 패러다임 적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남북한 통일은 서로 다른 남북한 국가 간에 서로 다르게 추구하는 미래이지만 그만큼 현재의 국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탈국가적 과정이다. 나아가 서로 다른 사

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들이 협상하며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열망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에서도 협력의 실천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선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산물이지, 과정없이 만들어질 사건이 아닌 것이다.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대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라는 질문이 현실적이듯, 통일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는 결과 지향적 질문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라는 과정과 방법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5. 맺으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UNESCO World Education Forum>에서 강조되었던 세계시민교육 아젠다와 <OECD Learning Compass 2030>의 주요 내용들은 이미 괴팅엔 통합학교에서는 실천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학교 통일교육이 지향할 바를 국제적인 영역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세계 청소년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평하게 질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UNESCO 2015), 학생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여,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초한 공동의 미래사회를 구축(OECD 2030)하는 데 주체(agency)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치관과 지식을 답습하는 수동적 교육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개혁적 역량으로 그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 학교 통일교육은 이러한 Student Agency를 극대화하는 주요한 플랫폼이자 프로세스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국어교육 내‘례절’에 관한 교육적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

엄인영

1. 서론

이 연구는 북한 국어교육 내에서 ‘례절’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북한식 가족문화와 정치적 가족주의의 집단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 공식화하기 위해 ‘례절’을 가치화하여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북한 청소년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집단의식, 폐쇄성, 조직성, 순응적 태도, 온정주의 경향, 권위에 대한 절대복종,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 등을 갖는다(한만길, 1997). 남한에 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있으며 ‘례절’이 바르고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익숙함을 보인다. 반면 이들은 그동안 받았던 북한식 ‘례절’교육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 지도자에 대한 절대복종이 북한 학교 교육에서 ‘례절’을 통해 가치화되었기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북한에서 국어 교과는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과목으로 교과서 제재의 대부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국어교육 내에서 ‘례절’이 교과서에 어떻게 표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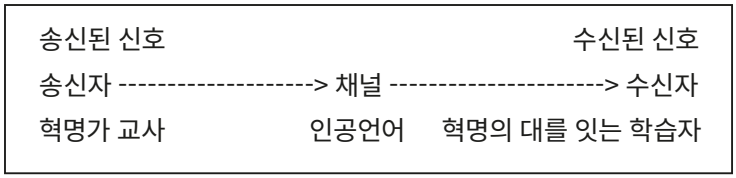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국어교육의 이념적 틀로 작용하는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북한 국어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살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 학교 교육의 ‘주체의 교육사상·이론·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로 불리며 북한 교육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의 큰 틀이기에 북한이 국어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 새롭게 개편된 북한 국어과 교육과정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례절’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표상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 국어교육 내 ‘례절’교육에 관한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학교 교육에 대한 미래의 전망과 방향을 설계하는 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북한 국어교육 내‘례절’에 관한 교육적 가치

북한 국어교육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국어교육 내 ‘례절’은 학습자가 주체사상의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받는 채널의 역할을 하며 ‘수령’의 교시를 수용하고 삶으로 그 가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에서 수령의 교시는 가장 권위 있는 언어로 주체사상의 교육적 가치를 ‘례절’의 형식으로 학습자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국어 교과서에 표상화된 ‘례절’의 내용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가치를 잘 반영한 결과물이다. 북한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방식은 수도관 메타포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수도관 메타포식의 북한 국어교육의 소통구조

북한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바탕으로 당과 수령의 교시를 인공언어(Lotman, 1988a: 34)로 만들어 단방향의 권위적인 말(authoritative discourse)로 학습자에게 수용하게 것을 [그림 1]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사는 혁명가로서 당과 수령의 말을 대신 전수하고 학습자들은 혁명의 대를 잇는 혁명가로서 교육 내용을 수용한다. 이때 교과서 내용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기반으로 하는 수령의 교시를 인공언어로 만든 것이므로 개인 간, 사회 문화 간 의사소통을 통한 수정, 보완, 삭제, 확장, 거부 등의 승인 없이 강력한 단방향의 소통구조로 표준화한다. '례절'은 수신자로서의 학습자가 수령의 교시를 수용하여 혁명의 대를 잇는 학습자가 되기 위한 수용적 태도와 관련된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개혁에 동참할 인민양성과 주체사상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기능이 강하다(한만길 외, 2010: 93-94). 북한은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사립학교와 전통교육 기관을 폐쇄하여 공립학교로 개편하였다. 또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헌신하는 학습자를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과정과 교과교육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과서 지식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침이 제작되어 일선 학교에 하달되었다. 교사들은 이 지침을 충실하게 수용하여 교수안을 작성하고, 그 교수안은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기에 수업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학생들의 1년간 학습 결과는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에 의해 평가받는다. 국가시험은 당과 사회단체가 관여하며, 교육은 학교의 일을 넘어서 정치조직의 개입을 받게 된다. 북한의 국어교육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어 지식의 선정, 전달, 평가 등을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한다(한만길 외 2010).

당과 수령에 의한 교육체제와 권위주의적 통제 관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은 노동과 근면,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인민의 본분 등에 대해 학습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된 애국적인 인물을 통해 국가와 민족,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학생들에게 혁명기와 전쟁 시기에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국어 교과서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북한 국어 교과서 내 '례절'교육의 교육적 한계와 가능성

북한의 국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찾기 어렵다. 북한은 교육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로 사회주의의 교육을 받은 학습자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내면화 하도록 훈련한다. 그리고 이 교육은 새로운 세대에게 재생산되어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주역이 되도록 한다. 북한 국어교육은 수령관을 형성하기 위한 주체사상 교양 교육과목이다. 수령관에 벗어난 내용은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국어 교과서의 기본 방침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로작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다. 교수지침서와 교과서에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이다. 따라서 북한 국어교육 전반을 이끄는 주체사상이 국어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체사상은 수령관, 인생관, 역사관 등으로 분류된다. 국어 교과서에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조직체론, 혁명관론, 의식화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육 관련 김일성 지시를 모아서 1977년 9월 5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문서이다. 그 내용에서 북한 교육과 국어교육이 주체사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인지 밝히고 있는데 이 문서가 '수령님'이 교시한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시켜야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첫 체계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본질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에 대해 밝히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전문,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사회주의 교육 제도, 교육 기관의 임무, 역할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한만길 외, 2000). 북한 교육은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구성한다. 김정은 시대 새롭게 구성된 교과서에 반영된 사상성을 알기 위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 중 '정치사상 교양'에 중심을 두고 교과서의 큰 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상교육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이라고 밝히면서 이론과 실천 전략, 생산 로동의 결합, 조직 생활, 정치 활동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은 2013년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정하였는데 엄인영(2022)은 조정아 외(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틀을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정치사상교양에 근거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사회주의교육에 관한 교육테제》의 정치사상교양의 교과서 분석틀

중점 사항	중점 항목		세부 내용
당 정책 · 혁명전통교양	충실성		• 청소년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 •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 •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혁명 · 공산주의교양	계급투쟁	계급	• 학생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 • w혁명의 원쑤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 • 학생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쑤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	• 학생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 • 학생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우도록 교양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	집단주의		•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 • 학생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 · 행동준칙, 생활규범	사회주의 애국주의 준법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 학생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을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함 •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교양
		사회주의적 준법사상	• 학생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가적으로 지키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 • 청소년 학생들이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 • 학생들이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

정치사상교양의 세부사상의 내용을 살폈을 때, ‘례절’에 관한 내용은 주로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 사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학생들이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한다는 내용에서 생활양식을 지켜나가기 위한 ‘례절’의 관점을 읽을 수 있다. 또 낡은 도덕관념을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을 자각하고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할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예절의 양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양을 통해 청소년 학습자를 국가의 통치 이념과 일체화하고 체제수호에 동원하려는 목적이 있다(현인애, 전경희 2016: 291-292). 이처럼 북한에서 말하는 ‘교양’은 항일투쟁의 전통을 이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전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용을 확인하고자 <표 1> 분석틀로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을 중심으로 북한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지키고 공산주의 도덕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북한의 교육에서는 언어, 인간, 환경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사상교양이 가장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어교육 내에서 ‘례절’에 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표 1>를 근거로 다음 <표 2>의 교과서 목록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2> 분석 대상 북한 국어 교과서 목록

과목명	학년	저자	출판연도	출판사
국어	소학교 1	리수향 외	2013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2-1	리수향 외	2014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2-2	리수향 외	2014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3-1	리수향 외	2014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3-2	리수향 외	2014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4-1	리수향 외	2016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4-2	리수향 외	2016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5-1	리수향 외	2016	교육도서
국어	소학교 5-2	리수향 외	2016	교육도서
국어	초급중학교 1	우인철 외	2013	교육도서
국어	초급중학교 2	우인철 외	2014	교육도서
국어	초급중학교 3	리근세 외	2015	교육도서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1	황금순 외	2013	교육도서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2	최학 외	2014	교육도서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3	김선일 외	2015	교육도서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에 관한 내용 중 ‘례절’과 관련될 수 있는 어휘 중심의 내용을 일부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에 관한 교과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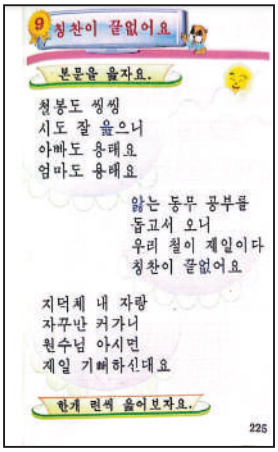
학년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의 내용
소학교	1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공부를 더 잘하도록 교양,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없애도록 교양
	2	언제나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공부는 제힘으로 해야만 제것이 된다,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 아버이에게 한 말과 행동은 소년단원답지 못한 것,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절 있게 대하는 것, 우리 학생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 나쁜 버릇이 붙어서 그런 거야,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커서도 착하고 바른 사람, 문화도덕수준은 말에서 표현됩니다. 어떤 일에서나 곤난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할 때 성공
	2-1	자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더 배우지 못하고 되풀이하게 되었으니까요
	2-2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주어든 봄향동무를 선생님은 무척 대견하게 바라보시였습니다, 교실의 책걸상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애국의 마음
	3-1	공중도덕
	3-2	큰 우정, 도와주어야겠다
	4-1	하루종일 일은 하지 않고 구유통만 핥는 꿀꿀이는 정말 건달군, 꿀꿀이처럼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2	동생은 마음씨도 착해, 도덕은 응당 지킬줄 알아야 한다,
	5-1	《잘못 심은 나무들을 바로잡아주고 정성껏 가꾸겠어》, 한그루의 나무라도 자기 손으로 정성껏 심고 가꿀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도 굳세진답니다(이하 생략)
	5-2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책상 하나, 걸상 하나, 유리 한 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모든 비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이담에 커서 나라의 큰 살림을 맡아서 잘 꾸려나갈수 있는거지 뭐.》,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야 한단다(이하 생략)
초급중학교	1	애국심의 표현, 깨끗한 량심, 교실을 자기 집처럼 깨끗하고 알뜰히 꾸려야 보다 문화 위생적인 환경, 교실과 학교에 대한 애착심과 동무들 사이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마음,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더욱 움터남, 교실은 공부하는 학습장소인 것만큼 언제나 깨끗하고 환하게 정돈, 주인다운 자각, 교실벽과 바닥, 창문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산과 강은 소원을 풀게 되었습니다(이하 생략)
	2	숲은 온갖 고은 옷을 떨쳐입고 시원한 바람에 춤을 춥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제일 좋은 색깔을 아껴두었다가 가을이 되니 우리 학교 앞산에 몽땅 뿜어올린 것
	3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창공밑에서 자유롭게 산다, 하늘과 구름, 땅과 별을 바라보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키워가는 것, 인류의 행복한 미래, 무성한 숲, 숲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지구는 점점 아름답게 변모되여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게 될것
고급중학교	1	옛사람의 노래에 비낀 아름다운 금강산 풍경, 금강산의 참모습, 세련된 언어로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를 생동하게 그리였다.
	2	눈이 부신 땅과 바다/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나서자란 고향을 살기 좋은 고장, 도라지꽃처럼 고향땅에 새봄,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날 어미양을 구원하려다가 희생, 좋은 고장, 새봄, 고향을 행복의 락원으로, 무릉도원
	3	아름다운 강산, 강물우에서 왜가리 노니는 풍경, 눈부신 흰눈이 자연의 산물, 현대의 문명은 이렇듯 조화롭게 결합,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 세상이 변한대도 제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장안 모습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의 내용은 소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준법 사상, 공산주의 도덕,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책상,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야기, 국가와 사회의 공동 재산을 아끼고 가꿀 수 있도록 교양하는 내용 등을 강조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에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자연과 인간 공존의 생태에 관한 내용이다.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 오곡이 물결치는, 꽃과 나무들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등으로 자연 예찬과 보호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규범의 생태에 관한 내용이다.' 공부를 더 잘할 것,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할 것, 개인리기주의사상 없애기, 똑바로 앉아 선생님의 설명 귀담아듣기, 제힘으로 공부하기,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절있게 대하는 것, 나쁜버릇 없애기, 부모님들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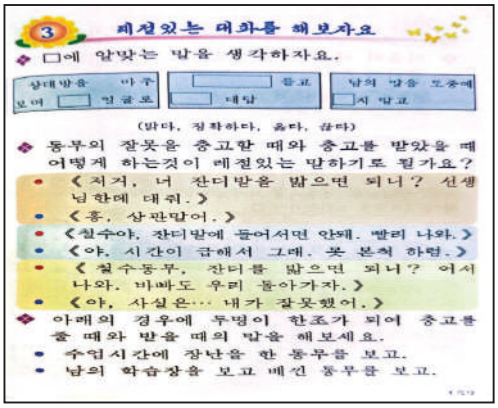
을 잘 듣기’ 등으로 공산주의 도덕,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잘 수용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치사상교양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러나 북한 국어 교과서 전반의 기저에는 정치사상교양이 내재되어 있다. ‘례절’이 제시된 구체적 단원을 제시한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소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례절’에 관한 내용



[그림 2] 소학교 2-1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례절’에 관한 내용



[그림 3] 소학교 3-1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례절’에 관한 내용

북한 국어교육에서 매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화’가 있다. 말하기 영역에서 ‘례절’을 잘 지켜야 함을 8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례절있게 전화를 걸어요’,‘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요’,‘전화를 짧게 하자요’,‘송수화기를 놓기 전에!’,‘전화말하기놀이를 하자요’,‘알맞은 전화말을 찾아요’,‘전화번호수첩을 만들어요’ 등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대단원에는 ‘례절’에 관한 직접적인 단원명은 찾기 어렵다. 내용 속에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시된 단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정치사상 교양 중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 교육의 내용 중 소학교 저학년 듣기와 말하기 단원에서 주로 ‘례절’에 관한 내용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사회주의 도덕에 관한 것으로 대화 상황에서 ‘례절’을 지켜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어 교과서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례절’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으나, 북한 국어과의 전체 목표가 정치사상 교양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교육은 체제유지를 위한 주체사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북한 국어교육 내 ‘례절’에 관한 교육적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틀로 2013년 개정된 북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정치사상 교양 중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 교육이 표면적으로 사상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된 단원중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단원에서 ‘례절’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정치사상 교양과 관련된 생활 교육의 차원이 ‘례절’교육을 통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긴 이야기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을 교육하기에 소학교 저학년에 비해 표면적으로 ‘례절’에 관한 제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주의애국주의 준법교양의 내용 중에는 생태학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례절’과 관련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전환 관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 국어교육에서 생태학적 관점과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례절’이 주체사상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국어교육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가진 것임을 시사하였다.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치 갈등과 내적 통합을 위한 방안

신효숙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통합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사례를 소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탈북민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사회구조적 배경으로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이로 인한 남북한의 상이한 가치교육과 교육경험을 들 수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남한사람들은 경제우선주의와 각박한 생존주의가 일상생활과 인식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서 상호인식의 차이와 가치 갈등, 탈북민이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어려움으로서 언어와 생활문화의 차이, 경제생활 및 민주시민 인식의 차이, 법·제도적 인식의 차이, 우리사회의 분단인식과 경계짓기 등 가치 갈등의 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주민의 가치 갈등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내적 통합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탈북민의 정착과 통합의 실태

탈북민 정착실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탈북민들의 강인한 정착 의지와 노력, 정부의 정착지원제도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했고,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2022년 59.2%(일반국민 63%)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실업률도 2011년 12.1%에서 2022년 6.1%(일반국민 3%)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월평균 임금도 2011년 121.3만원에서 2022년 238.4만원(일반국민 28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2a) 교육훈련, 출산, 육아,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일반국민과 거의 비슷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질적지표는 더 보완되어야 한다. 탈북민의 건강상태, 전반적인 스트레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일반국민에 비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탈북민의 건강상태 '좋음'은 32.3%로서 일반국민 53.1%에 비해 낮다. 탈북민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 59.8%로서 일반국민 44.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살충동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탈북민은 '있음'이 11.9%로서 일반국민 5.7% 보다 배로 높음을 알 수 있다.(남북하나재단, 2022b) 또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수준이 꾸준히 호전되고 있지만, 일반국민과 비교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취약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무 및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반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전문가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도 계속 나아지고 있지만 일반국민에 비해 수급률이 현저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정착과 관련,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재입북자가 존재하고 일반국민 대비 자살률과 범죄율이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다수 탈북민은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1년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22년 19.5%로 10명 중 2명 정도로 파악된다.(남북하나재단, 2022b) 반대로 탈북민 지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신중해지고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응답율은 2007년

52%에서 2022년 29%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율은 2007년 59.2%에서 2022년 43.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특히 한국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이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남북관계의 악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들의 정체성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민을 북한체제의 부정적 특성과 동일시하거나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착환경 조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통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남북주민 사회통합과 내적 통합

통합의 개념은 서구 이민자, 난민 통합에서 실시되었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이민자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에 기초하여 탈북민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이 발전되었다.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서 사회통합의 광의적 접근부터 협의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협의적 개념은 탈북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광의적 개념은 탈북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 사회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격차, 불평등 해소 등 사회통합의 조건(conditions)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진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회(equal opportunity), 사회적 자활 능력을 갖추는 자립(self-reliance), 탈북민과 한국사회의 조화로운 융합인 통합(integration)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제도적 통합과 경제사회적 통합, 심리정서적 통합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신효숙 외, 2016; 권은성 외, 2018)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입국과 동시에 한국국민으로 인정되고 참정권과 사회권이 보장되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착지원정책과 지원의 목표로 탈북민의 자립자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제도적 기회와 경제적 통합의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사회통합에 있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영역은 내적 통합이다.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 심리정서적 통합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영(2015)은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이 사회적 차별이 없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개념과 그것을 이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사회통합을 정의하고 있다. 윤인진(2019)은 “탈북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고유한 집단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고 안정된 생활과 평등한 기회를 영위하고 소속감을 갖고 일반주민과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탈북민의 우리사회 통합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기반으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체제에 대한 내적 통합과 가치에 대한 통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적 통합은 ‘도덕적 통합’이면서 ‘생활세계의 통합’이다. 내적 통합은 국가 정체성, 사회생활 방식에 대한 공통의 가치 체계,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인식과 가치관, 주관적인 기대, 심리정서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Habermas)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생활세계(lifeworld)의 통합’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 체계는 정치, 경제와 같이 사회구성원을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면, 생활세계는 가족, 학교, 교회와 같이 의사소통을 통해 중재되는 네트워크이다. 구성원 간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세계가 통합의 핵심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활세계의 통합, 심리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한주민의 일상적 편견과 사회적 배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속감, 신뢰, 정체성 등 사회적 관계와 연대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탈북민의 인식’과 ‘한국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두 측면을 가능한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주민의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생활세계와 의사소통, 심리정서적 통합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4. 남북주민 가치 갈등의 실태

탈북민의 국내 입국 숫자가 증가하면서 남북주민 간의 만남도 늘고 있다. 학교, 직장, 마을 등으로 접촉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남북주민 간의 만남과 접촉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있다. 남북주민 갈등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접촉지대를 기준으로 가정, 학교, 주거, 직장 등 공간으로 구분하여 갈등을 풀어가거나 또는 의사소통, 민주주의 의식, 법제도 인식 등 영역으로 구분해 갈등사례를 분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남북주민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갈등을 4가지로 유형화해 상호이해교육을 시도한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탈북민의 우수 정착사례 580건 중에서 갈등사례 276건을 추려내어 남북주민의 만남에서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부딪치는 갈등사례들을 유사한 사례들로 분류해 4가지로 유형화했다. 첫째, 의사소통 방식 차이에서 오는 갈등유형은 외래어, 신조어 등 남북한 간 언어차이로 인한 오해다. 아울러 직설적·간접적 표현 등 의사소통과 언어예절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부적응에 의한 갈등이다. 둘째, 문화와 생활방식의 갈등유형은 기본예절, 공동생활, 의식주, 문화활동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남북주민의 생활양식 차이로 인한 것이다. 셋째, 편견과 위축감에서 오는 갈등유형은 분단체제 하에서 북한체제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한 갈등이다. 넷째, 남북한의 상이한 법체계와 경제시스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다.(신효숙 외, 2020; 9-10) 위의 갈등유형에서 의사소통에 의한 갈등과 문화생활방식의 갈등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편견과 위축감으로 인한 갈등은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상호인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주민 가치 갈등의 양상을 언어와 생활문화 인식, 경제생활과 민주시민 인식, 법제도적 인식, 분단의식과 구별짓기로 갈등유형을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와 생활문화 인식의 차이

외국인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별도로 배워야 한다. 탈북민은 같은 민족이면서 한국어라는 공통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할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간 언어 차이는 외래어, 그 중에서도 영어 표현을 들 수 있다. SNS 증가로 인한 문자나 단축어, 신생어 등의 언어 사용도 어렵다. 언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남북한 어휘에 차이가 생겼고, 남북한 간 다른 의미의 언어들이 생겨났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만 언어의 의미가 달려졌고,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보다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은 보다 신중한 이해를 요한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간접적 표현으로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나중에 연락 드릴께요', '다음에 다시 올께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요' 라는 말이다. 그냥 헤어지기가 멋쩍어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탈북민은 사실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은 언어가 서로 다른 생활문화와 언어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경제활동, 생활환경, 문화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언어가 생성되고 유통된다. 언어는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는 문화공동체의 산물이다. 한국은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인 데 반해 북한은 '평양말' 중심의 '문화어'를 사용한다.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말을 지키는 것,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말다듬기 사업'을 진행했다. 북한의 언어정책은 '언어가 혁명의 수단'이라는 데 기초하며, 최고지도자의 말을 무한 권위를 가진 절대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언어는 직설적이며, 말에 대해 상당한 신뢰와 권위를 부여한다.(전영선, 2013) 또한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총화'를 통해 직설적 화법이 체화돼 있다. 총화에서는 자신의 성과와 잘못을 말로 설명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로 맹세하며,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잘못을 시정하도록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데 익숙한 사회다.

이렇게 남북의 언어와 생활문화에 차이가 생긴 원인으로는 한국사회의 변화상도 들 수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대인관계가 공적으로 접어들수록 우회적인 표현이 발달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대면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우회적 표현이

많아졌다. 직접적으로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탈북민이 자주 지적하는 것은 '한국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고 외교적인 표현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탈북민은 우회적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관계 회복, 단절 예방을 고려한 언어표현 방식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어와 생활문화에서의 인식 차이는 남북주민의 의사소통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2) 경제생활과 민주시민 인식의 차이

한국사회가 탈북민에게 기대하는 정착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다른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법질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탈북민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탈북민은 북한체제에서 국가와 당이 지시하는 것을 무조건 실행하는 '의무'에만 익숙하게 살아왔다. 북한사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였다면, 한국사회는 결정해주는 외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탈북민은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불법체류자로서의 삶도 자신의 의지보다는 외부 존재, 외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경험을 해왔던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탈북민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치, 사회의 민주화, 시민권의 보장 등 자율적인 시민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다. 이러한 기본 권리 중에서도 탈북민은 자유권과 권리행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자유권은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가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약하다.

탈북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동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유권'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한국사람들의 생활과 충돌하는 경우는 자유에는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은 집단주의 생활 경험으로 사생활 존중, 개인주의에 대한 의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국사람은 개인주의와 사생활 존중의 중요성으로 집단주의 문화나 탈북민의 직업 탐색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탈북민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되는 한국사회에서 상대방의 나이, 키, 가족관계, 월급 등을 물어보면 결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나이, 키, 월급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사람이 자주 '직장생활이 어떠냐', '친구관계가 어떠냐' 등 안부를 물어보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감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은 5호담당제 등 서로에 대한 감시가 철저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주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직장생활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탈북민은 북한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이것이 탈북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이었다.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고 돈으로 팔려가고 북송되는 경험 속에서 금전의 위력을 경험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는 가족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물질적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실제로 탈북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북한사회와 달리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라는 점이다. 탈북민들은 자유경쟁과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민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경제자본을 획득하는 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람 까무러치게 만들고 소변보러 갈 짬도 없다", "북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데 한국은 그 시간 안에 내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북에서는 업무 중에도 집단으로 노래도 하고 즐겁게 일하기도 한다", "남한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면 남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탈북민들은 다소 폐쇄적이긴 하지만 내부 결속력이 높은 북한의 직

장문화에서 나름의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생활은 이들의 눈에는 동료에 무관심하고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이다. 탈북민은 센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편이지만 한국의 이기적이고 돈만 아는 비인간적 이익추구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탈북민은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이웃 간 인정과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점은 그들이 북한에서 체화한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수, 2014)

(3) 법·제도적 인식의 차이

탈북민이 남북한 인식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영역은 법과 제도다. 이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자신의 삶을 직접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주민들은 법과 제도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뇌물 등 불법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사회로 평가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장사하기 위해 직장에 빠지거나, 병원진료나 지역이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등 모든 것이 뇌물로 해결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법제도에 있어서 남북한이 다른 점이 적지 않다. 탈북민은 모든 것을 정해주는 국가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선택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초법적인 존재를 의식한 법문화에서 벗어나 법치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이나 싸움 등의 방법으로 금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해 있다. 북한에서는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 별생각 없이 폭력을 행사해 법적 손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탈북민은 개인적 영역의 법지식과 관련해서 첫째로 대한민국의 법문화는 국가나 사회의 모든 부분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특히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둘째로 법문화에서 사적 자율성이 강조되고 자율성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최영신 외, 2017)

탈북민이 한국의 법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폭행죄와 상해죄, 합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사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며,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활경제와 연관된 법교육에서는 신용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융사기, 보험사기, 다단계 사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법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윗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한국의 시스템 상의 문제로 탈북민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또는 평가기준을 통해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 '왜 내가 지원받지 못하느냐' 라며 실무자를 건너뛰고 곧 바로 윗사람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윗사람이나 뇌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의존했던 북한 경험이 발현된 것이다. 탈북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무자를 건너뛰고 윗사람이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오해와 갈등이 증폭하게 된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직장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는 정해진 제도, 절차, 체계와 같은 시스템이 있음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4) 우리사회의 분단의식과 경계짓기

남북주민의 언어와 문화생활, 경제생활과 민주시민 인식, 법제도적 차이 등과 같은 가치 갈등의 기저에는 탈북민이 적대국가인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 한반도 분단구조는 남과 북이라는 적대적 분단의식을 재생산했다. 분단의식은 한국사회에 너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탈북민을 북한과 동일시하는 한국사회 분위기는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탈북민과 북한이라는 상징성, 북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쉽게 해체시키지 못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경계짓기'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분단구조는 세계체제의 일부로서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분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적 영역까

지 규율해 왔다. 분단구조는 지역적 분단, 이념적 분단, 체제상의 분단, 그리고 문화적 분단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된 두 개의 다른 정치체제이면서도 '독특한 상호적대와 상호연대의 결합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분단체제 하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차이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적대적 관계로만 존재한다. 분단체제는 분단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핵심은 '마음의 분단'에 있다. 분단체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적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안의 마음 체계를 분단시켜 놓았다. 남북 당국만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 내부에 마음의 분단체계가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분단체제와 의식 속에서는 타자와 상대국가에 대한 '공존'과 '상호인정'이 불가능하다. 분단의 작동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체와 타자 할 것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해 왔다. 분단적 인식은 단순히 북한, 북한사람, 탈북민이라는 타자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활용된 '빨갱이', '종북'이라는 낙인을 확산시켰다. 이처럼 타자에 대한 혐오, 두려움, 반감, 적대감 등을 확대 재생산시켰다. 이러한 분단적 인식과 감정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적절한 관계맺기를 어렵게 한다.(김성경, 2018a)

탈북민 정착의 장애요인으로는 한국사회의 공고한 '경계짓기'가 지적된다. 경계는 선을 긋는 것으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선이다. 경계는 집단 거주지역의 안팎과 같은 물리적·공간적 경계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관념적·형태적 경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관념적 경계의 형태로서 한국사회 내 한국 출신과 북한 출신의 경계짓기를 들 수 있다. 남북한 출신이 다르고, 어투나 말투와 행동양식이 다른 것으로 경계짓기도 한다. 이러한 경계짓기는 구별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다른 그 집단을 차별하고 낙인찍기로 이어진다. 한국사람들은 탈북민을 북한 출신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버린다. 한국에서 이들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북한 출신, 탈북민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다름의 대상이 되고 동정이나 배려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포용하고 환대하는 이웃과 같지만, 북한체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정이 투사되는 한국사회 내 소수자로서 불편한 존재로 소환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호인식과 관계맺기를 위해서는 탈분단 의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주민 가치 갈등에 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탈북민은 입국 초기 남한에 대한 환상, 민족공동체라는 상상에 근거한 가치와 정서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도하지만 곧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자신들을 대우하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깐 말하는 투가 완전히 바뀌고 무시하고", "서양에서 온 미국 교포는 우대하고 중국 동포나 탈북민은 천시하고" 등을 겪으면서 민족정체성에 회의심을 가진다. 한국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자본의 논리와 남한 문화중심주의에 의해 탈북민을 '게으르고 나태한 이등국민'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한국은 민족을 강조한다지만 말로만이고 실제로는 탈북민을 '다문화' 취급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한다. 탈북민이 한국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환상이 좌절하고 깨질 때 심한 갈등을 겪으며, 이는 한국사람과의 가치, 정서적 유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증오의 감정이 생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엄태완, 2021, 67-70; 이병수, 2014, 138-145).

5. 남북주민 내적 통합의 과제

남북주민 내적 통합의 과제로는 첫째로, 의사소통과 생활세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체계 통합을 넘어서 미시적, 개인적 차원의 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합은 정치나 법적인 수준에서의 체계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사회생활 방식에 대한 공통의 가치 체계, 심리정서 등을 포괄하고 있다. 법제도적 영역에서의 탈북민의 통합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북민은 입국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참정권과 사회권이 보장되고, 정부의 특별한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주민의 접촉지대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이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남북주민 간 의사소통과 생활세계의 통합이 절실하다.

이제 갈등 사례를 유형화하고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갈등 이해를 넘어 상호작

용 이해를 통해 생활세계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주민은 서로 지원자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두 집단의 갈등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갈등과 타협의 문제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다소 이분법적이며 대립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의사소통과 생활세계 영역의 내적 통합은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주민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순응과 충돌, 타협과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조정과 상호적응의 과정을 해나가며 상호적 마음체계를 탐색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상호문화 이해에 기반한 남북주민 사회통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내적 통합은 심리정서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서로의 적대감, 비난, 증오 등을 치유하고 인정, 공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 소통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신효숙, 2023).

둘째로, 심리정서적 통합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정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탈북모자 사망사건(2019.7.31.), 탈북민 전문상담사 무연고 장례(2022.12.21.)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착보호기간이 5년이고 10년 정도 되면 이 사회에 정착했다고 간주하는 시기에 불행한 사망 소식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한다. 탈북민의 정착에 경제사회적 측면은 물론 심리정서적인 면이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탈북민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 및 탈북과정에서의 생존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입국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사회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보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정착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그들의 외상 경험 못지않게 심리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우택외(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탈북민 '외상후 개인성장(Posttraumatic-growth)'에 사회적 지지, 특히 한국사람들과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한국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사람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심리사회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성장을 가져오는 사회적 지지는 탈북민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공간에서,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민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하다. 남북한 사람들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독서토론, 집단상담, 영화감상, 예술 및 체육 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남북주민 상호간 문화를 성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 습득을 넘어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주고 인식의 전환과 성장하는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사회통합은 탈북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인정(recognition)' 받고 소속감,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는 '모든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위한 투쟁이다' 라며 소속감과 정체성, 인정투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정'이란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타인이 확인해 주길 바라는 욕구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낀다.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와 굴욕,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인간이 인정을 갈망하는 이유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타인에게서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탈북민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인정과 소속감, 정체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탈북민은 한국사회 입국과 동시에 북한사회의 가치공동체를 상실한다. 이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가치공동체의 소속감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민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인정 철회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탈북민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탈북민으로 하여금 도덕적 존재로서의 자존심 훼손,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입국 초기에 같은 민족이라는 상상에 근거한 가치와 정서로 적응을 시도하지만 한국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대하지 않는 경험 속에서 민족 유대감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탈북민을 법적,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정치적 시민권의 보장은 물론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민의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 시민적 권리 확보와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 등 인정투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로, 남한주민의 포용과 '환대(hospitality)'의 윤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탈북민을 '환대'하는 윤리적 성찰이

요구된다. 환대는 나, 우리의 긍정적 자아실현을 위해서 낯선 이주민을 기꺼이 맞이하는 개방된 태도이며, 우리의 기준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환대는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타자에 대한 시혜적 태도, 위계적 접근, 공존의 가치가 내재화된 관용(tolerance), 증여(gift), 인정(recognition)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개념이다(최진우 외, 2020).

한국정부는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정책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기본철학은 탈북민의 자립자활이라는 경제적 분배 및 교환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정착지원제도는 한국에 정착한 댓가로 정착금이 보장되고 노력한 사람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방식이다. 정착지원정책은 노동할 수 있는 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더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이는 호혜성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제도의 틀과는 배치된다. 탈북민을 '환대'가 아닌 '교환'의 가치로 대하는 것이다. 교환의 가치 환경에서는 남북주민이 사회적 연대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탈북민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제도의 수혜자이자 경쟁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등시민으로 취급되기 쉬우며, 일반시민에게는 오직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경, 2018b). 이런 점에서 탈북민을 한국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환대'하며 자리를 인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은성·최영준·이일현·최혜진·신효숙·왕영민·강민주(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연구(3), 통합지표』. 남북하나재단.

김성경(2018a). "분단체제에서 사회 만들기." 『창작과 비평』 46(1).

김성경(2018b).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5(1).

남북하나재단(2022a).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2022b).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22). 『2022 통일의식조사』.

신효숙(2023). "한반도 평화교육의 방향 탐색: 남북한 주민 갈등과 통합교육을 위한 제언". 기독교와 통일. 14(1).

신효숙·황봉연·김보연·기자희·조민희·홍희경(2020). 『남북소통 이야기: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남북하나재단, 2020.

신효숙·김창환·설동훈·채정민·장인숙·왕영민(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지수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남북하나재단.

악셀 호네트 지음, 문성훈·이현재 옮김(2017). 『인정투쟁』. 사월의책.

엄태완(2021). "남북주민 갈등에 관한 아비투스 맥락의 새로운 해명." 『다문화사회연구』 14(2).

윤인진(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이민영(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9(49).

이병수(2014). "탈북자 가치관의 이중성과 정체성의 분화." 『통일인문학』 59.

전영선(2013). 『북한의 언어』. 에스에이치미디어.

전우택·유시은·조영아·김연희·엄진섭·민성길·김현경·김희진(2010). 『통일실험 그 7년』. 한울.

최영신·김대근·채경희(2017).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최진우·한준성·김새미·모춘흥·이상원·이지연·정승철(2020). "탈북민 환대지수(Hospitality Index)의 지표체계 개발 연구." 문화와 정치. 7(2).

현장에서의 학교 가치 교육

북한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교육

최영실

북한 「교육법」에 제시된 ‘사회주의 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북한 교육 가치관

북한 교육은 오랫동안 정치사상 교육을 모든 교과의 중심으로 놓고, 인간의 사상의식을 키우는 사업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김일성 시기 교육의 가치관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의식과 사회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의 사상으로 체득시키고 계급투쟁의 역사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에 대해 정치사상 교양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해왔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 발표)에 따라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을 목표로 학교 현장에서 가치교육이 운영되어 왔고 모든 교과에 김일성주의 사상화를 위한 정치사상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즉 학생들을 김일성에게 충직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김일성시기 학교의 교양 목적과 기본 임무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학생을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로,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가치관은 주체형의 인간 육성으로 표방하게 되었고, 주체사상은 수령독재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시기 교육의 가치관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으로 명시했다. 주체형의 새 인간이란 첫째, 김일성-김정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둘째,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집단의 이익에 복종하고 셋째는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겸비한 인간을 의미한다.

김정일정권 교육은 최종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근간으로,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재양성, 즉 북한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는 인간육성과 혁명사상과 과학기술, 국방과 노동의 의무를 다할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김정일정권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사상이 선군사상으로 당의 최종 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이 규정됨에 따라, 김정일시대 교육이념은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교육이념으로 공식화했다.

북한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복종하는 인간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즉 김정일과 국가에 복종하는 인간양성을 목표로 했다.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김정은정권 북한교육은 2019년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주체형의 새 인간’ 목표에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북한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교육의 중심은 ‘정치사상 교양, 계급 교양, 조직생활 교양으로 구분되며 여전히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워 사상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2. 정치사상 교과서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당정책 교과서

북한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 당정책 교과서가 있다. 북한은

교과교육을 통해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1]을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다.

소학교 교육과정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어린시절 내용, 초급중학교 교육과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활동,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력사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 무조건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모든 교과에 반영하여 교양하도록 규정하고 운영한다. 정치사상교양[2]은 혁명전통교양, 주체사상 교양, 당정책 교양, 수령에 대한 교양, 혁명업적에 대한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등 있다.

2) 계급 교양[3]

북한 교육은 계급 교양의 목적에 대해 학생들이 계급적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강조한다. 미국, 일본을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이고 우리 혁명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국어, 수학 등 교육내용에 계급교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가르치는 특성이 있다.

3) 조직생활(집단주의)

학교 현장에서의 조직생활은 학생들이 소년단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면서 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혁명적 실천을 통해 사상성과 조직성 의지를 키워주는 교양으로 운영한다. 북한 학생들은 누구나 '소년단과 청년동맹'에 제도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고 중요성에 대해 정치적 생명으로 간주한다. 조직생활을 통한 생활총화 회의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기본 학교생활과 밀착시켜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도록 한다. 생활총화는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한다.

교육에서 집단주의 본성에 대해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이익에 공동생활이 더 귀중함을 강조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체득하도록 교육한다.

4) 노동교육과 군사교육 과정의 결합

북한 교육의 특징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생산 노동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노동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나무 심기 등으로 각종 농촌 현장에서 고된 노동일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과외 활동은 자율성보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사상 교양 학습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의 강도는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인권유린 당하고 있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군사활동 초보' 과목은 장기적 군 생활을 위한 준비과목으로서의 역할로, '붉은 청년근위대' 입대과정을 통한 군사이론과 총쏘기 연습 등 군사활동지식을 습득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3. 북한 교육 학제

북한은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어 운영되었다.

김정은체제에 들어서서 학제개편이 있었고 기존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경했다. 기존 소학교 4년에서 5년제로 변경하고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해 실시하는 것으로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 251
2 북한 「사회주의 교육학」 p 50~65쪽
3 북한 「사회주의 교육학」 p 66~68쪽

변경되었다.

김정은정권의 교육 특징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화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에 집중하고 '정보기술'과목을 새롭게 편성하여 도입하였다.

4. 북한 교육 가치관이 미친 영향

1) 정치사상 교육을 우선시한 북한 교육 가치관이 미친 영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복종과 충성으로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특수성으로 교육의 가치관을 유지하여, 수령 중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이라는 북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수령 1인의 절대 권력형 세습이 지속되고, 수령체제, 사회주의 체제 교육이라는 전체주의적 하나의 틀로 편제된 정치사상 교육 구조를 지니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한정된 칭호이다.

2) 교육에서 중요시 한 조직생활은 수령의 령도 하에 집단주의 정신으로 바탕으로 조직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소년단조직, 청년동맹 조직, 노동당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사회구성체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조직생활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은 상호비판해야 하는 조직구조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피해 의식이 높게[4] 나타났다. 개개인의 성향은 공격성이 강하고 적개심이 높으며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 학생들은 창의력과 사고력, 개인 능력 표현력이 낮고 개인의 성장보다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 개인 능력 발달이 낮고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선택할 수 없다. 북한 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를 접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며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없다. 북한 학생들은 세계와 소통하는 자질과 태도를 갖출 수 없고, 북한의 교육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가치와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교육학」 사범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수학」 소학교 교과서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23년

4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피해의식이 높고 통제 속에서 생활한 결과 자립성이 낮음

통일 이후동서독의 공유 가치와 차이점

한넬로레 슈나이더

1. 인물 소개

한넬로레 슈나이더 (Hannelore Schneider), 73세, 마인츠 (Mainz) 거주; 가톨릭계의 오버라우짓츠 (Oberlausitz) 지역에서 출생 후 성장, 고등학교 졸업 후 베를린 훔볼트대학 (Humboldt-Uni)에서 영어 및 독일어 교육전공 학사 학위 취득. 교직 이수자로서 코트부스 (Cottbus)의 특성화 중학교 (*레알슐레Realschule) 교사로 근무하던 중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며, 코트부스의 직업전문학교의 고등 교육 교사로 전출되기 전까지 근무함.

1986년8월, 서독으로 이주; 교육분야에서 퇴임, 라이프치히 (Leipzig)의 가톨릭 성 벤노 출판사 (St. Benno-Verlag)에서 교정편집자로 일함. 1986년부터 코트부스의 반체제 환경 단체에서 활동함 (정의부문) – 1989년 5월 코트부스 지방 선거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동독에서 추방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Land Nordrhein-Westfalen)의 에센 (Essen)으로 이주, 교사 연수를 거쳐 캄프린트포르 (Kamp-Lintfort)의 초등학교 (*그룬트슐레 Grundschule) 교사로 근무, 마인츠로 이사후 2001년부터 마인츠 특성화 중학교 (*레알슐레) 교감으로 근무, 니어슈타인의 특성화 통합 중고등학교 (*레알슐레플루스 Realschule Plus)에서 근무함. 2015년 퇴직 후 시민 대학의 강사 겸 동시대의 증인으로서 활동함.

2. 구동독의 가치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을 위한 10계명“(그림 1 참조)은 60 년대에서 70 년대 중반까지 동독 시민들의 가치 형성 기준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유사한 계명 (융피오니어 Jungpioniere – *동독 사회주의 청소년 단체)과 법률 (텔만 피오니어 Thälmann-Pioniere – *청소년 사회주의 교육체제)도 존재했다.

독일 개신교와 천주교는 이데올로기적 무신론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국민을 위한 아편“으로서의 종교는 제거되어야 했다. 기독교적 가치는 예를 들어, 세례식 대신 사회주의적 명명식, 견진성사 혹은 성찬식 대신 성년식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에의 충성을 서약하는 제전), 교회에서의 결혼식 대신 사회주의적 혼인 체결과 같은 국가 교리로 대체되어야 했다.

사회적인 이익이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선이었다. 규율, 질서, 근면, 바른 행동거지, 집단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억압된 민족들과의 연대와 같은 가치의 교육이 주된 목표였지만, 현실에서는 부실한 경제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압박으로 인해 그 실현이 제한되었다.

구동독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자원, 지혜로운 계획, 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족했고 그리고 당원 자격이 없을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이들 사이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태도가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독창성은 장려되지 않았다. 서독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는 조직적으로 확산되었다. 사람들 (어린이들 또한)은 수년간 이중적인 얼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통일 직전 구동독의 상황:

- 구동독의 시민들은 서구 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독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구동독 매체의 조작된 목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
- 비참한 수준의 물적 부족, 증가하는 슈타지의 압박, 대규모 이주 신청, 여행의 자유에 대한 욕망, 독창성에 대한 열망은 많은 구동독 시민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 그들은 또 다른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방식 및 서독의 아름다움에 대해 매우 잘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독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 그들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사회 형성에 대한 참여를 원했다; 많은 이들은 점점 더 서독에서 중요한 측면을 보기도 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스스로 결정한 삶을 사는 방법,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확신이 없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결핍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3. 구동독 시민의 시각에서 본 장벽 붕괴 전 서독의 가치교육

- 서독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것들을 자랑스러워 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경제적 상황에서 살며 궁핍한 경제적여건과 촘촘하게 조직된 국가적 통제를 겪어본 바 없었다.
- 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와 인식이 부족했다.
- 인간상은 더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다른“ 독일 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진정한 관심이 부족했다.
- „구역 사람들 (*서독에서 동독을 지칭할 때 사용된 표현 중 하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비웃음을 받았으며, 일부사람들에게 „열등“하게 여겨졌다. 많은 서독 시민들은 동독에 가본 적이 없었으며, 만약 방문하게 되면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만 방문하였다.
- 혈연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때로는 과시적이며 불안정했다.

4. 구동독의 학교와 장벽 붕괴 후 서독에서의 가치 교육

5. 유대감의 전달에 관한 동서독 학교의 가치 교육

[그림 1]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을 위한10계명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을 위한10계명

1. 근로자 및 모든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불가분의 연결에 항상 헌신해야 한다.
2. 조국을 사랑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보호하기 위해 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3.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모든 노동자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사회주의를 위한 선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5. 상호적 도움과 동료애적 협력 정신으로 사회주의의 구축에 기여하고 집단을 존중하며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6.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한다.
7. 항상 성과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사회주의 노동 규율을 견고히 지켜야 한다.
8. 자녀를 모든 면에서 평화와 사회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성품이 강직하고 육체가 강건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9. 청결하고 품위 있게 생활하고 자신의 가족을 존중해야 한다.
10.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하거나 자국의 독립을 지키려는 다른 민족들과 연대를 표명해야 한다.